

여수 복지재단 설립 ‘급물살’

15명 구성 ‘추진위’ 발족...전남지역 4번째

복지사업 창구 일원화 서비스질 향상 기대

여수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가정 ‘여수시복지재단’이 설립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전남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목포, 광양, 신안에 이어 4번째다. 복지재단은 향후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업체와 기관별로 산재해 있던 복지사업 창구를 일원화하고, 복지정책 전반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여수시는 20일 “지난 19일 여수시복지재단 설립 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김충석 여수시장은 이 자리에 참석한 15명의 민·관 복지재단 설립 추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한 뒤 “위

원들의 지혜를 모아 훌륭한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시민 모두가 동참해 실질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건강한 지역을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추진위원회는 임재욱 한영대학 교수를 추진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복지재단 설립 기본계획과 시민공정회의에 관한 사항, 향후 추진방향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또 시민참여형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시민의견 수렴 방법과 재단사업, 시민모금참여 방법 등 시민들의 주체적인 운영참여 방안 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지역 특색에 맞는 재단을 설립해 가기로 했다.

김양자 환경복지국장은 “복지프로그램 개발·연구 조사로 전문적인 복지 인프라 구축과 복지시설 간 연계·교류 및 민간협력 사업 등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 기업들의 사회공헌 사업을 도모해 추진하고 지역사회 나눔문화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시복지재단은 60억원(시 출연금 30억원, 모금 30억원) 규모의 기본 재산 적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진위원회는 복지재단 설립 기본계획에 관한 논의와 시민공정회를 내달 9일 오후 시청 회의실에서 열고 발제 및 토론을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어 내년 초 재단법인 설립 등기와 직원채용 등의 절차를 마친 뒤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에 나서게 된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목포 서산·온금지구 재정비 사업 박차

市, 기반시설 실시 설계 용역착수

목포시가 서산·온금 지구 재정비 촉진 계획 결정에 따라 후속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20일 서산·온금 지구 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도로 12개소 3665m, 공원 3개소 8만7654㎡, 주차장 2개소 5401㎡ 등 기반시설을 비롯

해 단계별 예산 집행 계획 등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됐다.

목포 서산·온금 지구 재정비 사업은 지난 2012년 11월 결정고시됐으며 지난 9월10일 승인된 촉진 1구역(온금동 일원)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을 위한 후속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 제2구역(금화동 일원)과 제3구

역(서산동 일원)도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치중 도시개발사업단장은 “중간 보고회에서 거론된 내용들을 보완해 기본설계를 거쳐 지방재정 투입자 심사를 받을 계획”이라며 “실시설계를 근거로 국토교통부 국비 지원금이 확정되면 기반시설 설치사업부터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해풍맞고 자란 보성쪽파 수확 한창

최근 보성에서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해풍 먹고 자란 보성쪽파를 수확하며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김장철에 맞춰 쪽파 수확을 모두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보성쪽파는 특량·최천면 일대에서 1130여 농가에 830ha재배하고 있으며, 올해는 1만5천여를 생산해 240억원의 농가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보성=김홍백기자 kyb@kwangju.co.kr

광양시, 도로파손 막는 제설방식 전환 추진

염화칼슘·모래 대신 친환경 제설제·장비 구입 검토

광양시가 매년 국지성 폭설이 내리며 교통 재해가 예상되면서 친환경 제설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중이다.

시는 20일 “지난해 예상치 못한 폭설로 관내 도로곳곳이 마비되는 등 혼란을 겪은 바 있어 시 이미지에 걸

맞는 친환경제설방식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염화칼슘과 모래를 제설제로 살포하고 있어 도로시설물의 내구성 단축, 가로수고 사 및 수질·토양오염, 자동차 부식 등

2차 피해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울산·창원지역의 교통이 마비되자 해당 지자체가 바닷물을 제설제로 사용해 가로수가 고사하는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속출했다. 그러나 기존 제설장비 보유와 추가장비 구입 등으로 일부 공공기관은 친환경 제설 방식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조달청은 조달품목에서 염화칼슘을 자제하고 친환경제설제 사용을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권장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형철 도로과장은 “매년 교통량이 많은 설해 위험도로 7개 노선 11개소 구간을 지정해 운영되고 있다”며 “이들 도로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내년부터 친환경 제설제와 장비를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다시 불밝힌 진도 조도 번서등대

복구사업 완료...서남해 향해 선박 길잡이 역할

목포지방해양항만청(청장 남광물)은 20일 “지난 2010년 강풍으로 파괴된 진도군 조도면 팽골군도 서측 3km 해상에서 번서 등대를 복구하고 최근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사진>

목포항만청은 강풍이나 태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국비 13억원을 투입, 등대를 기존의 콘크리트 구조 대신 높이 16m, 길이 7m의 강관파일식 구조로 변경했다.

번서 등대는 서남해 권역을 항

해하는 주요 선박의 통항분리가 이루어지는 중요 변점점의 기준이 되는 등대로, 항후 선박의 안전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김동태 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장은 “번서 등대의 복구로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게 됐다”며 “지속적으로 항해 위해요소를 제거해 해양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주)도회, 남악신도시 오피스텔 6차 분양

전남도청 인근 교통여건 등 장점

남악신도시 전남도청 맞은편에 도회에드가 2차, 5차 오피스텔을 성공적으로 분양한 (주)도회가 6차 오피스텔 분양에 나섰다.

(주)도회는 20일 “지난 8월 말 에드가 5차를 분양을 마치고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로 전용면적 27.36~59.28㎡의 원룸, 투룸, 쓰리룸 등을 갖춘 에드가 6차 분양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에드가 6차는 아파텔(Apartel)이라는 신개념 오피스텔로 모두 390세대다.

(주)도회 측은 “전남도청 맞은 편에 자리하고 인근에 전남지방경찰청, 전남도교육청 등 풍부한 수요자와 사통팔달의 교통 여건, 대형마트 및 은행 등 서비스시설, 중앙공원 등이 장점”이라며 “에드가 5차가 선풍적인 인기로 조기에 분양 마감됨에 따라 투자자 및 실거주자의 요청으로 파격적인 분양가로 공급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택전시관은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255번지 한양 프라자 5차에 위치해 있다. 자세한 문의는 061-261-0008로 하면 된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여수 엠블호텔, 호남권 최초 ‘웨딩페어’

내달 14일 예비부부 100쌍 초청

여수세계박람회장 내 여수 엠블호텔이 호남지역 최초로 웨딩페어를 실시한다.

여수엠블호텔은 20일 “다음달 14일 오전 10시 호남지역 최초로 예비부부 100쌍을 초청, 특급호텔의 결혼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제1회 웨딩페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웨딩페어 1부에서는 신부들을 위한 피부관리법과 메이크업 시연, 웨딩드레스 쇼, 2부에서는 결혼 요리 시식과 결혼 상담이 이어진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엠블호텔 웨딩다이어리를 무료로 제공하며, 당일 결혼 계약 시 20% 할인 혜택도 줄 예정이다.

또 웨딩페어에 참가하는 결혼 관련 상품 계약 시 특별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웨딩페어 참가 비용은 무료이며, 소셜커머스 티몬에서 선착순 마감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061-660-5840~1, 엠블호텔 누리집(http://www.mvlhotel.com/yeosu)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해남땅굴호텔

일출과 일몰, 그리고 다도해가 어우러지는 곳- 바다 위의 휴식처 해남땅굴호텔

하늘과 맞닿을 듯한 위치에 자리 잡은 해남땅굴호텔은 우항의 공룡박물관, 이순신 명랑대청, 송호해수욕장, 땅굴관광단지, 보길도, 달마산, 두륜산도립공원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휴식공간입니다.

그 곳에 가면

영산재·오동재가 있다.

한옥호텔 영산재와 오동재의 대청마루에 앉아 차마시이로 열린 하늘을 바라보지면 차마 끝에 매달린 내 시를 한 조각 바람 되어 멀리 날린다. 긴 세월 영산강과 여수왕바다를 휘돌아 오는 청아한 바람만큼은 아름다운 천설이 되어 코를을 스치고 유달산과 영위산에서 불어져 나오는 맑은 정기는 매미의 여름을 적시어 새 희망을 잉태시킨다.

해남땅굴호텔 536-924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1227-1 Tel.061-530-8000 Fax.061-530-8003

영산재 ■ 위치,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292 ■ 예약 및 전화문의, 061)460-0300 ■ 규모, 객실수 21실, 한식당, 연회장, 전통혼례청, 전통문화체육관

오동재 ■ 위치,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394-5 ■ 예약 및 전화문의, 061)660-1000 ■ 규모, 객실수 32실, 한식당, 연회장, 전통혼례청, 패백실